

## "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" 운영 안내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인식 제고 및 예방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.

♣ 대상: 관내(미추홀구, 중구, 동구, 남동구, 연수구, 옹진군) 실업급여 수급자

♣ 운영계획

○ 자진신고기간: 2022년 7월 1일 ~ 7월 31일(4주간)

－ 자진신고 창구: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(☎032-460-4753)

※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,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4층

－ 자진신고 효력:

실업급여 종류	부정수급 처분	자진신고 혜택
구직급여	1. 실업급여 지급 중지 2. 실업급여 반환	3. <u>추가징수(최대5배) 면제</u> 4. <u>형사처벌 선처 요청*</u>
조기재취업수당	3. 추가징수 4. 형사처벌	

\* 부정수금액, 부정수금액 반환정도, 처벌전력 등 검토하여 형사처벌 선처 요청

♣ 주요 부정수급 유형

○ 취업 또는 일용근로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인정을 신청함

\* 현재 소득(임금 등)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근로한 사실은 신고하여야 함

○ 자영업, 프리랜서 또는 가족 내지 지인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음

○ 실제 취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·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함

○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이직(퇴사)사유를 거짓으로 기재

○ 실제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수급

○ 그 외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
♣ 자진신고 기간동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는 수급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로 문의하거나 방문, 팩스 등을 통해 붙임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☎032-460-4753 / 팩스: 0508-8230-0115).



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

##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요 적발 사례

- A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에 일한 공장에서 일손이 바쁘니 잠시 일을 도와달라고하여 실업급여 수급 중 주말에 2일간 일을 도와주었으나 실업인정 신청 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2일분 구직급여가 아닌 56일분(2회분)의 구직급여 3,336,720원을 모두 반환함.
- B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친족(이모)가 운영하는 식당에 하루 잠깐 나가 일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후, 용돈을 받은 것이라 생각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후 적발되어 28일분(1회분)의 구직급여 1,683,360원을 반환함.
- C씨는 지인의 권유로 후원방문판매업체에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수당을 받은 후, 이를 자신의 다른 지인들에게도 권유하였다가 자영업 행위로 적발되어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및 그 추가징수액을 반환하고, 형사입건됨.
- D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일거리 삼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주일에 대리운전 두 건 정도를 하고, 소정의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후 적발되어 64일분(3회분)의 실업급여 3,847,680원을 모두 반환하고 형사입건됨.
- E씨는 실업급여 수급 이전에 일했던 사업장에서부터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부수입으로 삼아왔고,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도 개인 방송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이후 적발되어 실업급여 수급 전액 및 그 추가징수액을 반환하고 형사입건됨.